

당뇨병으로 생기는 피부질환

당뇨병을 오래 앓다보면 몸 여기저기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그 중,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것이 피부질환 합병증인데, 피부가 참을 수 없이 가려운 증상과 세균이나 곰팡이의 감염, 뽀루지나 종기가 끊이지 않고 생기고 이것이 다시 궤양으로 변하는 증상 등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성 피부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다양한 증상의 피부질환

당뇨병 환자에게는 당뇨병성 피부병과 당뇨병성 수포증외에도 얼굴이 붉게 변하기도 하며 손가락 끝이 딱딱해지는 당뇨병성 경피 등 다양한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피부감염은 피부에 침입한 세균으로 인해 피부가 붉는 증상으로 보통 포도상구균과 연쇄상구균에 의해 발병하고 여러 군데에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피부질환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항상 몸의 상태를 주의하며 외부에서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위생에 신경을 쓰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사소한 피부질환이라도 철저하게 치료하여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소양감(가려움증)

당뇨병 환자에서 흔히 전신적인 가려움증이 나

타날 수 있다. 이는 주로 피부의 건조증에 의해 발생한다. 전신적 또는 항문이나 성기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피부감염

당뇨인에게서의 피부감염은 소양감과 함께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포도상구균에 의한 세균 감염과, 진균(곰팡이) 및 캔디다(곰팡이의 일종)에 의한 진균감염이 흔하다.

· 캔디다증이란?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 혀 점막이나 외음부, 손톱주위에 잘 생긴다. 피부상피에 혈당이 더 높아서 이러한 곰팡이가 잘 자라는데 여성에게서 더 잘 생긴다. 손톱주위 캔디다증은 손톱부위가 붉게 부으며, 통증이 일어나는데 때로는 농이 나와서 세균성 감염으로 오진되기도 한다. 손을 건조하게 하고 항진균액으로 치료할 수 있다. 외음부의 캔디다증은 그 부위가 가렵고, 붉어지며, 때로는 농이 생기기도 하는데 외음부 가려움증으로 내원하여 당뇨병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소변에 당이 빠질 때 캔디다증이 증식되기 때문인데, 당뇨의 정도와 가려움이 비례한다는 보고가 있다. 치료는 항진균성 질내 삽입제나 크림을 쓴다.

또한 발 무좀은 당뇨병 환자에서 흔한데, 발가락 사이와 발톱에까지 병변이 와서 발톱이 두꺼

워지고 누런갈색이 되어 거칠어진다. 손이나 손톱에 곰팡이가 있는 사람은 몸의 다른 부위로 옮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치료로서 국소적인 항진균제는 별 효과가 없으므로 경구로 투여해야 한다. 손톱감염은 6개월, 발톱감염은 18개월까지 치료해야 한다.

▶ 당뇨병성 신경증

당뇨병성 신경증은 하지에 주로 오며 피부의 감각이 떨어져 화상을 잘 입게 되고, 궤양이 잘 생긴다. 신경증이 진행되면 땀샘이 기능을 못하게 되어 피부가 건조하고 두터워지며, 하지에 땀이 안 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몸체나 얼굴에 땀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건조한 피부는 잘 갈라지게 되고, 갈라진 부위에 균이나 곰팡이가 잘 증식한다.

또한 말초혈관질환이 잘 오는데, 이유는 당뇨병에서 동맥경화증과 미세혈관병증이 잘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 하지의 피부는 얇아지고 매끄럽고 차며 털이 빠지고, 다리를 올리면 창백해지고 내리면 붉어진다. 또 발가락이나 발꿈치, 발등에 당뇨병성 신경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아프고 감각이상 있지만 가끔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 당뇨병과 심한 비만, 기관지 천식을 가진 당뇨인 중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입안에 계속 아구창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 유지방성 과사생성

주로 정강이 부위에 적자색 또는 분홍색 판의 형태로 나타난다. 몸통이나, 얼굴, 손, 발바닥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 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0.3%에서 나타나며 당뇨병이 조절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치료는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국소주사를 시행한다.



유지방성 과사생성

▶ 당뇨병성 피부병

당뇨병 환자의 50% 정도에서 나타난다. 정강이 부위에 거무스름한 약간 함몰된 피부병소로 나타난데, 여성보다 남성환자에 더 많다.

▶ 당뇨병성 수포증

염증이 없는 물집이 주로 팔, 다리의 말단부분에 나타난다. 대개 4~5주 이내에 자연치유되며 흉터는 남지 않는다.

▶ 당뇨병성 괴저

동맥경화증과 당뇨병성 신경장애가 동반된 환자에서 발의 궤양이 생긴후 치유가 되지 않아 발생한다.

▶ 카로텐 축적증

손, 발바닥이 노란색으로 변한다. 황달과는 달리 눈의 흰자는 침범하지 않는다.

▶ 피부흉조

당뇨병에 의한 혈관이상으로 생기는 것이라 추정되며 얼굴과 손발이 장미색조를 띤다.✎